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5월은 장미의 계절... 도로 주변에 장미꽃 활짝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23일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에 장미꽃이 만개해 있다.

전북형 마이스 브랜딩 강화

도, 산업부 지역특화전시회 개최지원 공모에
신재생에너지·국제종자 박람회 선정 국비 확보

전북도가 올 하반기 '지역특화전시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마이스 산업브랜딩 강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한국전신산업진흥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 지역특화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공모에 2건의 산업전시회가 선정돼 1억1,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전시회 지원사업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전시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북도는 이번 선정에 따라 해외마케팅과 수출상담회, 방역 장비 인차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전북도 관광총괄과는 이번 공모사업 제안을 위해 전북테크노파크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전북만의 독창적이고 특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획안 개발에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왔다. 18회를 맞는 '2022 전북도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는 오랜 역사성과 축적된 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육성정책을 특장점으로 제안했고, '2022 국제종자박람회'의 경우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박람회임을 부각했다. 그 결과 제안사업 2건 모두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전라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박람회'의 경우 해외홍보와 해외바이어 초청 등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 국비(5,000만원)를 지원하고, '국제종자 박람회'는 참여기업 홍보 등 비즈니스와 판로개척 지원에 국비(6,000만원)를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2022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는 오는 9월 2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GSC)에서 개최되며, 전시부스 운영, 포럼 학술대회, 테크니컬 투어 및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어 개최되는 '2022 국제종자박람회'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제시에 위치한 종자산업진흥센터 일원에서 전시포 투어, 종자산업 관련 학술 행사, 기업 수출지원·B2B 수출상담회 등의 프로그램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운동목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전북을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농생명 분야의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도내기업의 수출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유망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마이스 전시산업의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중한 권리 행사하세요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의료기기 실증 구축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동안 총 215억 투입
전북도 전주캠퍼스 내 실증지원 센터·장비 구축
탐색·발굴부터 기업 기술개발·실증 등 지원

전북도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R&D 인프라를 대학 및 공공기관에 구축해 기업의 실증, 사업화 등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50개 과제를 지원한다. 그 중 전북도와 전주시, 전북대는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과제에 응모했으며 대면평가 등을 거쳐 최종선정 됐다.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에 도와 전주시가 각각 50억원, 대학에서 15억원, 총 2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 내에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기반 혁신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개발지원 및 제품화를 위

한 실증지원 센터와 장비를 구축해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탐색·발굴부터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사업의 세부내용은 소재합성개발실, 실증·평가실 등으로 이루어진 전층 건축과 25종의 전문장비를 구축하고, 시제품/소재 개발지원, 물리화학적 평가 인증 및 GDP 평가 인증, 혁신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지원 등의 기업지원을 추진한다. 본 센터는 2019년도부터 구축 진행중인 중재작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와 인접하여 건축할 계획이다. 중재작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는 2019년도 산업부의 지역산업거점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한 사업이다. 국내 유일 중재의료기기 전문 연구개발센터로 3, 4등급 중재의료기기 제조, 평가 장비 및 GMP기반 제조 시설을 구축 중에 있으며, 지난해 10

월 센터를 완공했다.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는 위 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소재개발-의료기기제작-물리화학적평가-GMP기반 생물학적인전성평가-사용적합성평가까지 의료기기 사용화 전주 기업지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전주시 김중성 신성장추진대경제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신의료기기 핵심원천기술 국산화 위한 실증센터 인프라 구축이 실현되어 의료기기 수입 대체 및 글로벌 시장 진출한 핵심 인프라 구축이 마련돼 향후 바이오산업 투자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북도가 전국 최초 혁신중재의료기기 특화산업 거점이 되고 관련기업 이전,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국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본 사업과 같은 특화분야 발굴 사업에 힘써 전북을 고부가가치 첨단의료기기 선도지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김윤상 기자

호남권 제약 인력양성 인프라 마련

전북도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선정
정읍 신정동 연구개발특구 일원에 내년 착공 예정

전북도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지역선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22년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사업을 수행할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진행하였다.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는 제약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GMP실무실습 교육수행으로 제약분야 전문 미래인력을 양성하고, 권역 내 현장 실무형 교육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이다. 도는 정읍시,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협력력을 통해 공모사업을 준비했고,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4년간 국비 126억원, 지방비 54억원 총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정읍시 신정동 연구개발특구 일원에 국제기준을 갖춘 첨단 인력양성센터와 전문교육장비를 구축하며, 올해는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착공 예정이다. 국제기준을 갖춘 첨단 교육시설로 연간 1,200명의 글로벌 표준에 적합한 제약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의약품 특성분석 지원 등 기업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의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를 전북에 유치함으로써 호남권 제약 현장형 인력양성 전문 인프라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호남권에는 제약실습을 위

한 전문 인프라가 없어 약학대학 및 바이오산업 관련학과 재학생들은 실무실습을 위하여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나가거나 기업에서의 참관형 교육만 가능했었다.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는 호남권 등의 제약 관련학과 재학생 제약기업 재직자, 구직자 등 연 1,200명을 대상으로 제약공정 실무 역량 강화과정, 실무실습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정읍시 신정동 연구개발특구는 정 부출연연구소 3개소(첨단방사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우수 연구기관이 소재해 이 기관들과의 연계로 공동연구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원료·완제의약품 분석 및 임상 및 비임상 분석, 국제GMP 기준에 맞는 컨설팅 등 기업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를 지원하는 기업지원 기능도 수행할 예정으로 지역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호상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